목 차

CONTENTS · 사모하되 분별하라: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프롤로그. 불개미집 위에서

제 1 부. 성령님을 만나다

1 장.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

1.1. 나의 성령 체험과 신학적 여정 | 1.2. 남가주에서 일어난 성령운동

2 장. 도망친 요나, 다시 부르심

2.1. 나의 부름의 이야기

제 2 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3 장.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님

3.1. 헬라어 성경의 성부·성자·성령 | 3.2. 성령님의 역할 | 3.3. 신약의 성령님은 누구이신가(12 가지 정체성)

4 장. 성령님과 동행하는 언어

4.1. 성령님의 교통하심(코이노니아) | 4.2. 바울의 성령 동행 표현 20 가지 | 4.3. 성령님께 인도받는 자유와 공적 책임

5 장. 교회가 고백해 온 성령님

5.1. 터툴리안 | 5.2. 바실리우스 | 5.3.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 5.4.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 5.5. 티슬턴 | 5.6. 맥스 터너 | 5.7. 콜린 건턴 | 5.8. 클라크 피녹 | 5.9. 제임스 던

6 장. 성령의 바람이 분 자리

6.1. 한국 교회의 영적 거장들과 부흥의 유산 | 6.2. 성령의 역사와 현대 부흥운동의 흐름(5 대 부흥운동)

7 장. 천사는 성령님이 아니다

7.1. 구약과 신약의 천사 의미 | 7.2. 사역 현장의 천사 도우심 | 7.3. 신약의 천사 사역 16 가지 | 7.4. 천사의 육체적 접촉 | 7.5. 천사와 영적 존재들의 모습

제 3 부.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

8 장. 은사,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방식

8.1. 성령의 역사와 아홉 가지 나타남(파네로시스), 은사와 공동체의 질서

9 장. 성령 세례, 무엇을 받는가

9.1. 제임스 던 | 9.2. 조지 몬태규 | 9.3. 고든 피 | 9.4. 존 스토트 | 9.5. 네 학자의 비교 | 9.6. 종합적 정의

10 장. 방언, 영으로 드리는 기도

10.1. 방언과 외국어(방언 통역) | 10.2. 방언과 '마귀 방언' | 10.3. 방언과 통역 실제 | 10.4. 왜 방언인가 | 10.5. 영적 언어의 아름다움

11 장. 꿈과 환상, 그리고 분별

11.1. 성경과 사역 현장에서 본 꿈과 환상 | 11.2. 거짓 영의 역사와 거짓 은사 분별

12 장. 예언, 덕을 세우는 말

12.1. 성경의 예언이란 | 12.2. 나의 예언 사역의 시작 | 12.3. 예언 사역자와 받는 사람 | 12.4. 예언 사역의 공동체성과 4 단계 훈련

13 장. 축사, 예수 이름의 권세

13.1. 축사란 무엇인가 | 13.2. 신약성경의 귀신·악한 영 용어 14 가지 | 13.3. 내가 경험한 축사 현장 | 13.4. 안에서 밖으로 몰아내다(엑발로)

14 장. 신유,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14.1. 복음서의 치유와 믿음 | 14.2. 치유를 구할 때 기억할 10 가지 원리 | 14.3. 성경적인 치유 기도 | 14.4. 공급자·싸움의 주님·치유자이신 예수님

15 장. 선교지에서 만난 성령님

15.1. 감비아 이장의 아들 | 15.2. 선교센터 아이들 | 15.3. 어느 선교사님의 현지 훈련생 | 15.4. 베테랑 선교사님의 현지인 제자들

제 4 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16 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기

16.1. 왜 로마는 기독교화되었는가 | 16.2.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17 장. 성령의 열매

17.1. 그리스도의 성품 | 17.2. 하나의 열매, 아홉 가지 성품 | 17.3. 은사와 열매 | 17.4.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가 | 17.5. 성령충만의 참된 증거

18 장. 제자와 증인으로

18.1. 제자(마테테스) | 18.2. 증인(마르튀스) | 18.3. 증인에서 순교자로 | 18.4. 초기 교회의 제자도 | 18.5. 성령 사역에서 왜 중요한가

에필로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프롤로그 불개미집 위에서

공수훈련학교의 세 번째 강하에서 떨어진 곳은 불개미집 위였다. 그 자리에서 배운 기도 한 줄로 이 책을 시작한다. 내가 만난 성령님은 교리 속 개념이기 전에, 위급한 순간마다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신 분이셨다.

보병에서 군종목사까지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 육군 보병으로 4 년간 복무하면서 파나마에 세 차례 파견되어 파나마 전쟁 막바지에 참전했고, 정글학교 훈련도 두 번 수료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군 군종목사로 사역하는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병원이나 상담 분야에서 사역하지만, 미육군 공수보병부대 출신으로서 공수훈련(Airborne)과 레인저(Ranger) 훈련을 모두 수료하고 군종목사가 되어 수많은 전투부대와 해외 파병지를 거친 한인은 나와 또 한 사람뿐이다. 이러한 인간의 극한 체험은 나의 삶과 신앙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군생활을 하면서 19 번 해외파견을 나갔고 15 개국 나라를 갔다 . 특히 2007 년부터 2025 년까지 18 년 동안 현역 미군 군종목사로 사역하면서 동두천 근무을 했고 특히 제 82 공수사단 시절에는 이집트 연합공수훈련에 참여했고, 아이티 대지진 당시 우리 공수부대가 긴급 파견되어 한국에서 온 선교팀들과 연예인들이 구호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전했다. 제 1 특전단(1st Special Forces Group)시절에는 호주에서 벌어진 특전사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필리핀 민다나오 대테러 전쟁에 참여했고, 워싱턴주 제 2 사단 시절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연합군훈련에 참가했다. 2018 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개발을저지하는 작전계획이 있었을때 현역한인계 군종 처음으로 주한미특전사에 발령을 받었다. 주한미특전사 (SOCKOR) 에서 근무할 때는 매사리와 군산에서 자주 강하 훈련을 했다 (미군 군종목사로서의 사역과 전쟁터 및 해외 파병 이야기, 내가 모셨던 위대한 미군 지휘관들과 미국의 리더십, 그리고 미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별도의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전역, 그리고 다시 부르심

그리고 2025 년 여름, 총 22 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은퇴했다. 솔직히 다시는 사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평범하게 은퇴를 즐기면서 조용히 살고싶었다. 그러던 중 미국의 보수 기독교 변증가 찰리 커크(Charlie Kirk)의 죽음을 보며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준비 과정을 거쳐 2026 년 2 월과 8 월에 페루를 거점으로 이전에 쓰임 받았던 성령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불개미집 위에서 배운 기도

내가 부흥회나 집회에서 치유와 축사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빠짐없이 먼저 나누는 간증이 있다. 조지아주 공수훈련학교(Airborne School)에서 세 번째 낙하산 강하를 할 때였다. 땅에 너무 심하게 부딪히며 착지하는 바람에 충격으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5 분쯤 지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하필 내가 떨어진 곳은 조지아주의 악명 높은 불개미집 위였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사방에 시커먼 불개미들이 난리가 나서 내 몸을 타고 기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나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라!" 라고 선포하며 내 두 다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듯 내리쳤다. 거짓말 같지만 그 순간 온몸을 뒤덮었던 시커먼 개미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추었다. 마치 살충제(에프킬라)를 뿌려 죽인 개미들처럼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정지해 버렸다. 그 주간에 콜럼버스 순복음교회에 가서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간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 힘, 감정, 분위기, 혹은 초자연적 에너지가 아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3 인격이시며, 창조와 구원, 성화와 교회와 선교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 추구하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격을 알지 못한다면, 성령님을 단지 초자연적 기능이나 능력으로만 축소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이시며, 돕는 이시고, 가르치시는 자이시며, 변호자 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그분이 주시는 은사와 열매는 우리의 자랑이나 영적 계급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

내 경험은 백과사전이 아니다

내가 그동안 체험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경험이 백과사전이 될 수는 없다. 나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내 경험에 다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책의 내용들은 성경과 교회 안에서,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을 배경으로 삼고 선교지와 사역 현장에서 나타난 성령 사역에 근거해 기록했지만 독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성령 체험의 모양이 다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해석과 체험 역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한 적이 없으며,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교리의 틀에 가둘 수 없는 분

누구도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인간의 지식과 생각, 혹은 특정 교단의 교리와 신학 틀 안에만 가두어 둘 수 없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학문이나 교단 차원에서 주장하는 교리들 역시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령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교단 정치의 한계 속에서 성령 운동이 적지 않게 침체되어 있다. 인간은 영적으로 한계가 있고 성경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에, 우리는 교단과 교파의 벽을 넘어 항상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성령의 생생한 체험을 탄탄한 성경적·신학적 토대 위에 세워 나갈 때,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확장해 나가고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면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책을 쓴 이유

이 『성령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책의 목적은 기독교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기본적인 진리를 알리고,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언하며, 성령님과 대조되는 다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쓴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책이 한국 교회의 성령 사역을 위한 든든한 신학적·실천적 밑거름이 되어, 부흥의 현장에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며, 인생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삶을 살아갈 새 활력을 얻으며,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여 각자의 삶과 사회 속에 선하고 긍정적인 회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성령님을 알아서 선교를 잘하고 영혼을 구원하는곳에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남들을 절대 비판하기 위해 쓰는것이 아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고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4 부 18 장의 구성

이 책은 총 4 부 18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부(1~2 장)에서는 어린 시절과 이민 생활 속에서 내가 체험한 성령님과, 요나처럼 도망치던 나를 다시 부르시고 신학으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제 2 부(3~7 장)에서는 성경 원어와 스토리가 증언하는 삼위일체와 성령님(3 장),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과의 동행 언어(4 장), 초대 교회 교부들과 현대 신학자들이 정립한 성령론(5 장), 성령님이 이끄신 근현대 부흥운동의 역사(6 장), 그리고 성령님과 천사의 구별(7 장)을 설명하였다.

제 3 부(8~15 장)에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은사(8 장), 성령 세례(9 장), 방언과 통역(10 장), 꿈과 환상과 영적 분별(11 장), 예언 사역(12 장), 축사 사역(13 장), 신유 사역(14 장),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만난 성령님의 역사(15 장)를 다루었다. 제 4 부(16~18 장)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삶(16 장), 성령의 열매(17 장), 그리고 성령 사역의 최종 목적인 제자와 증인의 삶(18 장)을 정리하였다.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사람들

이 책을 누구에게 권하고 싶은가? 선교와 영혼구원 열정이 더필요한분들, 은사에 대해 혼란을 겪는 이들뿐 아니라, 초신자나 성령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은 성도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수많은 크리스천들, 그리고 성령 사역에 몸담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든든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려고 노력했고, 단순한 현상 소개만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신학, 현대 신학, 그리고 사역 임상 현장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아우르고자 했다.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엄청난 간증들, 또 실패의 이야기들도 많지만 지면상 다 적지 못했고,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절제하여 기록했다.

두나미스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제목

원고를 집필하며 처음 구상했던 '두나미스(Dunamis) 파라클레토스(Parakletos)'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두 헬라어를 결합한 것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킨다. 성령님은 교회에 능력을 부어 주시는 두나미스이시며, 동시에 믿는 이들을 돕고 위로하며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파라클레토스이시다. 이러한 책의 핵심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 출간 제목을 여러모로 고심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보았다(1 순위: 『사모하되 분별하라: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2 순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분별하라: 21 세기에 읽는 성령론』, 3 순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4 순위: 『전쟁터에서 만난 성령님: 두나미스와 파라클레토스』, 5 순위: 『보혜사, 내 안의 하나님』).

두나미스는 능력, 힘, 권능, 역사하는 힘, 곧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뜻한다.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 (dynamite) 도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힘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4-5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성령님을 가리켜 사용하셨다.

요한복음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끝으로 지금도 미전도부족들을 위해 성경번역을 하시고, 목숨걸고 어려운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외딴지역 에서 어려운 분들을 섬기시는 분들에게, 교회개척을 하시면서 이름없이 이름없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식사와청소와 주일학교를 섬기는 분들에게, 소그룹이나 구역식구들을 인도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시간마다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영상을 맡으신 분들에게,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등등, 흔히 말하는 급하고 강력하게 성령님의 임재의 체험이 없더라도 성령님의 나타남이 없도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같이 계시고, 여러분을 충성과 믿음을 사용하시기위해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여러분들의 훌륭히 섬기는 믿음에 경외를 표하고 용기를 드리고싶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 동안 평소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점들이 명쾌해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성령 체험을 사모하던 분들에게 육체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풀리고 해답을 얻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열정은 잃지 않되, 모든 영적 경험을 성경과 신학, 교회의 지혜와 삶의 열매를 통해 분별해야 한다.